

한 빛이 만상 삼키니 다시 해가 떠오르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㉓ 북녘에서의 마지막 유생

을사조약의 율가미가 씌워지던 해(1905년) 경허 스님은 북녘으로 발길을 돌린 뒤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머리를 기르고 박난주(朴蘭洲)라고 이름지었다. 경허 스님이 왜 삼수갑산으로 몸을 숨겼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경허 스님의 유방은 환속이 아니었다. 다만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행위다. 선은 형상으로 성(聖)과 속(俗)을 가르치지 않는다. 깨달음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삼수갑산에서 경허 스님의 행적은 재가제자로 삼은 김탁 등에 의해 수덕사에 전해졌다. 김탁은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발족을 위한 국민회의 국민대표 250인 중 한명에 포함 될 정도로 평생을 조국광복에 헌신했다.

경허 스님은 김탁의 집에서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그러나 김탁에게 조차 경허 스님은 제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아니 밝힐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깊은 학식과 범상치 않은 행동거지, 눈빛까지도 유생 박난주가 보통 사람이 아님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탁도 그 주위에 물려드는 사람도 경허의 전력에 대해 과거를 캐묻는 사람은 없었다.

김탁의 집에 머물던 경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산으로 옮겨 도하리라는 작은 마을에 거처를 정했다. 거처를 정한 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때 마침 경허 스님을 찾아 북쪽을 돌던 수월 스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됐다.

박난주라는 떠돌이 유생의 기이한 행적과 범상치 않은 모습은 강계, 갑산을 비롯해 해산, 풍산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수월 스님은 김탁의 아내 박씨 부인의 안내로 도하리 글방을 찾았다.

서당에 도착해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짚신을 보자 수월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짚신임을 알아보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스님,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스님, 스님, 저 수월입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사람을 잘못 알았소이다.”

그러나 경허 스님은 끝내 방문을 열어 제자 수월 스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수월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뜻을 알고 이를 받들기로 했다. 수월 스님은 몇 마디 말로도 경허 스님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았다. 열반이 머지 않았음을 짐작한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을 위해 짚신을 한 켤레 삼아놓은 후 삼배했다.

‘모르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천릿길을 달려온 수월 스님에게 ‘모르오’라는 그 한마디를 일러준 경허 스님. 스님은 그 한마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일러줬다.

삼수갑산으로 몸 숨겨

유생 박난주로 글 가르치며

겉모습 다른 선사 풍모 여전

열반에 등그린 원 남겨

스승 경허 스님으로 부터 짚신 삼는 법을 배워 간도로 건너간 수월 스님은 당시 기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동포들에게 짚신과 주먹밥으로 보살행을 행했다.

경허 스님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다만 두 눈의 광채가 병색과 나이를 잊게 했다. 1911년 경허 스님은 선달 그림날 홀로 서당에 앉아 인생무상과 노년의 고독을 노래했다. ‘선달 그림날 밤(際夕)’이란 시다.

天緒暗懷託以言 山深雪冷一書軒
 천 갈래 쌓이는 회포 어찌 말로 다 하라
 산은 깊고 눈은 차가운데 쓸쓸한 글방일세.
 去歲清明江界畝 今年除夕甲山村
 지난해 정명은 강계읍에서 보냈는데,
 올해 선달그림은 갑산 마을에서 맞는다.

俄忽鄉關先入夢 不期旅?暫忘痕

홀연히 고향에는 꿈속에서나 가보았는데
 기약도 없는 나그네의 시름 잠시 잊어붙이거나.

窓燈耿耿喧 佇聽隣溪幾寄門

창 앞에 등불이 빛나고 사방이 고요한데
 이웃집 닭 우는 소리에 쓸쓸히 문에 기대네.

유생 박난주로 강계, 갑산의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아홉 해가 지났다. 1912년 4월 하순 어느 날, 경허 스님은 글방으로 찾아온 김탁과 마주 앉았다. 경허 스님은 자신이 쓰고 있던 담뱃대와 썬 지를 가리켰다.

“여보게 담, 내가 죽거든 이 담뱃대와 썬 지를 함께 물어주소요.”

“그 담뱃대와 썬 지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까?”
 “훗날 이 담뱃대와 썬 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 담뱃대와 썬 지는 8년 전 천장암에서 만공 스님에게 전법계를 주며 후래불법을 부족하고 북녘으로 향할 때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올린 선물이었다.

경허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다. 그 달 어느 날 집 안팎의 잡초를 말끔히 정리한 경허 스님은 홀연 그 자리에 누웠다. 마을 사람들의 급전을 받고 김탁이 달려왔다. 벽 쪽으로 누워있는 경허 스님은 간혹 어깨만을 들썩였다. 문득 스님이 붓과 먹을 달라고 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던 경허 스님은 험차게 붓을 내리찍었다. 동그라미, 일원상이었다. 이어 힘을 다해 글을 쓰고 붓을 내던지고 숨을 거뒀다.

心月孤圓 光吞萬象
 光境俱忘 復是何物
 마음달 홀로 둥글어
 그 빛 만상을 삼켰어라
 빛과 경계 다 공한데
 또다시 이 무슨 물건이리오.

1913년 4월 25일 세수 64세, 승랍 56세 때였다. 곧 날이 밝으며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경허 스님이 입적한 지 1년 뒤 1913년 여름 어느



그림 · 박구원

날, 스님의 입적을 알리는 수월 스님의 서신이 수법제자 해월과 만공 스님이 머물고 있던 예산 정혜사에 도착했다. 만공과 해월 스님은 곧바로 행장을 꾸려 갑산으로 출발했다.

갑산 용이방 도화동 글방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김탁을 만났다. 김탁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유품을 본 순간 틀림없이 스승 경허 스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난덕산에 있는 경허 무덤을 찾아 봉분을 무너뜨리고 땅을 파 관을 꺼냈다. 관 속에서 썬

가 나와 경허의 시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공과 해월 스님은 경허의 시신을 화장하는 다비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스승 경허 스님을 기리며 열반을 추모하는 시 한 수를 읊었다.

착함은 부처를 지나고 악함은 호랑이를 지나면
 경허선사여
 천화하여 어느 곳으로 향하셨는가
 술에 취해 꽃 같은 얼굴로 누워 계시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다례”

일 시 : 불기 2556(2012)년 6월 14일(음 4/25)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문의처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 02)2198-5388

다례 봉행위원회

총 명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 법전 대종사

고 문 종산 지혜 밀운 초우 고산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종우 월탄 인환 정관 암도 근일 세민 정련 지성 보성

문도대표 설정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지승 종사

봉행부위원장 보선 법등 현응 지원

봉행위원

정호 우승 정념 현조 원해 성웅 성문 돈관 성타 선각 성조
 수불 도명 호성 원행 시용 종삼 무상 범각 성호 법만 정수
 자광 석원 고우 지환 무여 해국 종진 덕민 동주

자문위원

원웅 철산 철산 능담 서강 적명 설당 의정 추일 원인 불산
 황로 노웅 지삼 정휴 종상 해담 보원 정안 세영 혜자 정현
 도현 태효 효웅 성문

지도위원

태연 종성 정인 성직 성월 응산 적전 삼해 청원 원경 건진
 법보 장명 현근 활중 장직 덕조 정문 운성 경성 심우 제정
 종호 원정 무관 정오 오심 종선 자현 성우 원해 만당 일문
 영관 진화 원경 법정 합결 덕수 도정 경우 초격 일관 지홍
 각일 무애 대오 해일 각림 향적 법안 성행 정도 장운 원범
 종민 법해 정산 영배 해림 본해 일운 상화 상덕 일진 탁연
 계환 지홍 지성 정운 구과 허운 지산 몽산 경선 재원 종성
 평상 도완 보경 진오 덕문 탄원 도연 승언 운달 범어 원오
 삼묵 선문 자현 덕관 일초 범산 주해 법준 원일 동산 현중
 현민

추진위원장 지운

추진위원

지현 능도 일강 진명 법광 정념 심경 효광 흥선 법인 송묵
 법상 태성 도법 법진 도문 정묵 우승 현전 법정 법안 법찬
 웅산 해안 수경 응관 법흥 도신 삼오 자명 금산 진원 자인
 월송

집행위원장 주경

집행부위원장 우봉

집행위원

현담 도건 현담 수진 묘장 탄고 무관 분오 가섭 석중 남전
 노홍 해안 효성 지오 덕원 경경 선본 동준 능혜 정암 수암
 정범 허정 진광 정오

재가추진위원

김의정 구자선 박윤훈 엄상호 이준 백창기 김성림 손안식
 김대욱 김명숙 김화남 노춘배 신명 윤원호 윤천수 이기홍
 이연숙 이춘호 임장수 정월자 김형남 김중욱 허경만 김응철
 김규범 이송자 황재운 구분일 생기홍

진행위원

대웅 종학 청운 서원 성화 낙운 경보 보정 성우 범신 육통
 원일 정룡 명정 경학 해찬 동덕 무여 강민 정호 보성 해은
 정준 성산 무구 청우 흥법 현우 해연 초은 도문 선광 선오
 관공 정운 지현 명선 종실 법경 지영 청화 도영 종식 우엽
 현담 도한 정호 현암 수법 묘정 인벽 밀본 견신 도원 용운
 원우 명업 국전 정안 현행 묘행 현명 광조 지철 승철 선혜
 효명 진우 자홍 법륜 원경 지성 도목 법탄 현적 영도 성중
 대일

실행위원

효탄 영덕 광효일 한상길 이인혜 이상균 김용환 정성운 이정란

봉사위원

제7교구신도회(회장 이종호) 수덕사 신도회(회장 박숙자)
 수덕사 합창단(회장 최병희) 수덕사 봉사단 보현회(회장 이신숙)
 수덕사 선다회(회장 민진선) 수덕사 수사모(회장 이종진)
 수덕사 불교대 동문회(회장 조일형)

이상 (무순)

◆ 주최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다례 봉행위원회 ·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 주관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